퓨전국악을 생각하다

정서적 허손증(虛損症)을 치유하는 음악을 위해

최 효 민 · 국악방송 프로듀서

혼불의 작가 고(故) 최명희 씨는 한 수필에서 기다림과 고통에 대한 비유로 구증구포 하여 약재로 다시 태어나는 숙지황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약은 허손증(虛損症)을 다스리는 약이란다. '허손증이란 사물에 허기를 느껴, 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지고자 덤비는 것' 이라고 묘사하였는데, 정신적 허손증에 시달리는 음악도 적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스스로 숙지황을 찾아 처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시 전통에 천착해보는 것도, 다른 민족음악의 미감에 취해보는 것도 퓨전국악을 단지 '뜻밖의 나들이' 로 생각하지 않는 현대의 진지한 음악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어린 봄날 선유도에서 해금을 만나다 …

아직은 어린 봄이던 2월 말,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몇 년만에 돌아 온 동생과 한강 선유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직 새순이 돋지 않아 약간은 밋밋한 산책길을 지나 한강문화관에 들어설 무렵, 어디선가 귀에 익은 해금 선율이 들려왔다. 해금연주자 정수년이 연주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강상구 작곡)이었다. 요즘 이 곡이 환경에 관련된 공익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여 그 유명세 덕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국악계 테두리 밖에서 한강과 소박한 공원을 마주하며 듣는 해금소리는 내내 반가움을 넘어선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음악은 창작국악이라고 하기에도 힘든, 굳이 갈래를 만들자면 소위 뉴에이지 음악 풍의 '이지 리스닝' 음악일 터였다. 동생의 소맷부리를 잡고 스피커 근처로 다가가 보았다.

"좀 들어 봐. 해금으로 연주한건데,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 더 나았을까?"

"글쎄, 그럼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시시할 것 같은데?"

"너 같으면 이런 음악을 뭐라고 할 것 같니?"

"뭐, 대충 편안하네. 악기 소리는 특이하구. 이런 음악이 그전엔 별로 없었다구? 그럼 그것만으로도 콜럼버스 달걀이네. 언제 국적 따지면서 음악 들었나. 난 뭐든 적자생존이라고 봐" 그녀는 별 고민을 다 한다는 듯이 싱긋 웃더니 방금 흐른 선율을 흥얼거리며 저만치 달려가 버렸다.

적어도 개인적 캐릭터가 살아 있어 반가운 음악

단순명료한 사실이지만 이렇듯 일반인들은 물론 음악을 꽤나 들어왔다는 애호가들조차도 철저히 소비적인 시각으로 음악을 향유한다. 그 소비적 시각을 곡해한 나머지 고민의 흔적조차 없는 음악을 '대중적 음악' 이라며 내놓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소위 다대륙적인 음악성향이 '국악기 음향' 안에 녹아든 퓨전국악(적어도 5음 음계나 장단체계 등 국악적 음악 이디엄(idiom)들이 생생하게 돌출되는 단순한 크로스오버로서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변용에 가까운 음악들이라고 정의하고 싶다)이 지금은 하나의 갈래로 분류되어 버린 현재의 음악시장을 본다면 소소한 분쟁들은 이면으로 들

어간 셈이지만, 본질을 흐리는 싸구려 음악이라느니 이것저것 뒤섞어 놓은 조잡한 치기라느니 하는 폄하의 시선이 여전히 제도적 국악계 안에 팽배해 있는 듯하다. 놀랍게도 그건 특별히 세대 간의 차이도 아니다. 충분히 유지되고 존중되어 짐에도 오랜 시간 '비소비성 음악' 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통국악계의 습관적 편견일 뿐이다. 때로는 '우리 음악의 심오한 세계로 유도하기 위하여 그런 사탕같은 음악도 필요하지' 정도의 입장을 대단한 관용처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크로스오버, 퓨전국악의 태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자체가 전통음악으로의 길라잡이를 자처한 적도 없으며 실제적으로 크게 기여한 바도 없는 철저한 개인적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었다. 그들이 힘주어 말하는 대목은 늘 '나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이다. 뚜렷한 동류의식 속의 익명성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전통음악계에서 퓨전국악의 존재 자체는 기특하면서도 야릇한 심정을 자극하는 미운 털일 수 있지만 그들의 현재진행형 음악이 음악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신의 음악을 소비시키는데 적극적인 그들의 존재가 반가운 것이고 그래서 친절할 수밖에 없다.

노지에서 크는 채소가 더 강하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물이다. 음반이든 공연이든 이 퓨전국악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음악 프로듀서가 중심이 된 음악과 직접 음악을 작곡하거나 연주하는 이들이 중심이 된 음악의 결과물은 제법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보다 냉정하면서도 민감한 시각으로 어떤 대목에서 청중이 반응하는지 잘 알고 있어 아웃풋의 평균치가 제법 고르고 음악의 호흡이나 흐름을 잘 갈무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적어도 국악이 아닌 '국악기' 에서나마 얻고 싶은 기대치를 여지없이 무너뜨릴 때가 많다. 가령 해금 연주를 들으며 선율선은 물론이요, 어떤 악기와도 조화를 못 이루는 '이류 바이올린' 이나 25현금 합주를 들으며 서로 부딪쳐 깨지는 '삼류 하프' 를 떠올리게 될 때는 여러모로 우울하다.

반면 후자는 그 체계 없는 과욕으로 인해 오히려 아웃풋은 전자보다 심각한데, 역으로 희망적인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적어도 음악을 직접 해 본 이들은 체감도가 다르다. 적어도 악기의 속내를 볼 줄 알고 완성도를 떠나서 묵직하게 소리를 새길 줄도 안다. 새기는 소리가 남다르다는 것은 전통국악의 뚜렷한 미덕 중의 하나다. 그들이 주축이 되는 음악이 그다지 많이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만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퓨전을 하겠다고 입장 명시를 한 음악인이라면 자신이 포함하고자 하는 다른 음악에 대한 이해력도 그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한 때 사물놀이에 재즈만 만나도 감동하던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퓨전국악의 소비층 역시 지극히 좋은 음악에 감동하며 기존의 음악에서 보다 특별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음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이들이 더 많다. 누가 중심이 되든 향유자의 수준을 임의로 낮춰 볼 필요는 없다. 그건 지나친 오만함이다. 재즈를 접목하고 싶으면 많이 듣기라도 해 볼 일이다. 아프리카 음악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프리카 음악의 지형도를 그려 볼 일이다. 생각해 보면 그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장단의 갈래를 섬세하게 나누 듯 모든 음악에는 고유한 혈맥이 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요구하는 바도 섬세하다. 프로듀서나 음악인들이나 오히려 시행착오를 더 해 봐야 한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지에서 크는 채소가 더 강하다.

정신적 허손증(虛損症)을 치유하기 위해

현재 필자는 국악방송에서 세계민족음악과 월드뮤직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세계의 좋은 음악을 다 골라 들으니 개인적으로 큰 즐거움이기도 한데, 냉정하게 말하여 이건 이 땅에서 음악 방송 PD로 살아야 하는 숙명에 대한 충실한 수긍이자 일종의 벤치마킹이기도 하다. 네댓가지 이질적인 음악요소들이 모여 그 어느 하나 기우는 것 없이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는 다른 나라의 퓨전음악을 들으면 아직은 약하고 일천한 우리 퓨전음악계의 토대가 안쓰럽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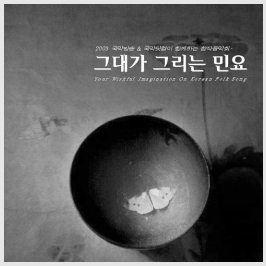
하지만 저들의 음악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을 3, 40년 전에 이미 다 거쳐 지금은 지극히 편안해 보인다. 어떤 베트남 가수가 재해석한 베트남 북부 자장가는 베트남 치터

(zither)인 '단 트랑' 반주가 간간히 들어 가고 약간의 재즈풍 편곡이 들어갔을 뿐인데도 이국의 음악 PD에겐 사무치도록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다. 민요 발성만 20년 이상 해 온 그녀의 그 간단한 음악에는 말할 수 없는 '애정'과 남다른 전달력이 느껴진다. 유태인으로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 가수는 특이하게도 스페인에 남아있는 유태, 아랍계 음악인 라디노 음악(Ladino Music)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브라질 특유의 나른한 감성을 녹아들게 하여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 냈다. 이란의 퓨전음악들도 독특하다.

그들은 13세기의 수피교 시인들의 시를 발굴해서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선법은 페르시아 다스트가(Dastgah) 이되 선율은 이방인들도 따라 부르기 쉽게 지극히 서정적으로 만들었다. 오로지 민요와 고전시가를 채보하고 전통 음악을 익히는데 2, 30년을 말없이 노력해 온 그들은 퓨전음악을 할 때 어떤 음악요소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의 화학적 변용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남아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서정세계, 깊고 긴 시간의 퇴적층들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미묘한 감동을 준다. 지난해 말 국악방송이 주축이 되어 만든 〈그대가 그리는 민요〉(2003. 12. 27. 중앙대학교 아트센터)라는 창작음악회는 미약하나마 그 시간의 퇴적층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회였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하지만 '달을 따서 안을 대고 별을 넣어 수를 놓아…' 이런 환상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토속민요를 가곡으로 만들기도 하고, '금다래꿍' 같은 서도민요가 실내악으로 탄생하기도 했으며, 물레타령이 재즈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다. 물론 최근 들어 새로운 의욕을 가진 음악가들이 우리의 토속 자장가나 정악을 소재로 해서 퓨전국악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퓨전음악이 굳이 '이지 리스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사족처럼 보이는 잡다한 음악적 장식이나 고유의 미감을 해치는 지나친 단순화는 오히려 귀에 거슬린다.

혼불의 작가 고(故) 최명희 씨는 한 수필에서 기다림과 고통에 대한 비유로 구증구포 하여 약재로 다시 태어나는 숙지황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약은 허손증(虛損症)을



다스리는 약이란다. '허손증이란 사물에 허기를 느껴, 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지고자 덤비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는데, 정신적 허손증에 시달리는 음악도 적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스스로 숙지황을 찾아 처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시 전통에 천착해보는 것도, 다른 민족음악의 미감에 취해보는 것도 퓨전국악을 단지 '뜻밖의 나들이'로 생각하지 않는 현대의 진지한 음악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의 자취가 있는 선유도의 기둥처럼…

해금 음악을 벗 삼아 선유도를 다시 돌다보니 '녹색기둥의 정원'이라는 곳에 다다랐다. 80년 물때가 앉은 열주들이 고운 돌 위에 서 있고 여름날 눈부시게 푸른빛으로 기둥을 감쌌던 담쟁이 줄기도 그대로다. 1920년대부터 있었던 한강 내의 정수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생태공원으로 꾸민 이곳은 선유도 공원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란다. 70년대 중반 서울에서 나고 자라, 쭉쭉 치솟은 고층 아파트를 유년시절부터 구경하고, 그 아파트가 단지 20년이 좀 넘었다는 이유로 척척 철거되는 일천하기 짝이 없는 근대의 건축 문화에 질려있던 필자에게도, 이곳은 시간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보기 드문' 공간이라고 생각되었다. 언젠가 이 선유도 산책에 우연히 동행했던 문화계 친구는 이 열주들을 안아보고 똑똑 두드리기도 하더니 "콘크리트에서도 온기가 느껴진다"며 내내 감동했었다. 모든 사안에 대체적으로 냉소적인 그가 보잘것없는 기둥을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 기둥의 원래 용도는 고단하게 몇 십년 동안 묵묵히 오수를 정화하던 수조였는지도 모른다. 물때가 고요히 스민 이 기둥을 감고 있는 담쟁이… . 그 어디 새로 만든 대리석 기둥에 댈 것인가. 우리가 만든 퓨전국악도 켜켜이 쌓인 공간과 시간을 지우지 않고 다시 태어난 이 '녹색기둥의 정원' 같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 온 정서적 허손증도 서서히 치유되리라.